

11. 경계선 없애기 II (6:45-8:10)

복습

1. 바다/경계선

- 지역적으로는 경계선=> 유대인 지역(갈릴리 호수 서편)과 이방인 지역(갈릴리 호수 동편)
- 신학적으로는 하느님을 대항하는 세력 (ANE 신화)

2. 큰 그림 이해하기. 이방전도의 신학적 성찰--신학 다시하기 관점에서(4:35-8:21).

- 배와 풍랑 I (4:35-41)=> 제자들의 믿음 없음 (예수의 신학/복음/믿음 혹은 이에 대한 신뢰)
- 배와 풍랑 II (6:45-52)=>제자들의 깨닫지 못함, 마음이 둔함 (=> 4:12)=> 홀로 서기/자기 신학 확립에 실패
- 요나 이야기=> 이방인 전도, 풍랑, 요나는 자고 선원들은 놀라고(Eugene Boring, *Mark*, 143). Cf. 막 8:12//마 16:4; 12:38-39//눅 11:29

3. 말씀, 믿음, 복음의 관계

- 말/말씀(λόγος): 단순한 발언(something said)라기보다는 그 이면의 사고/생각(reason, ground, motive)으로 믿음과 상통=> “하느님의 믿음” “예수의 믿음” => 제자들/마가복음의 믿음=> 우리들의 믿음 (이런 연관/연계성이 표출된 문구=> “갈릴리로 가라”)
- 복음: 이런 믿음이 추구하는 체계, 가치관. 복음은 편들기/선택.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치관은 찾을 수가 없다. 크게는 “하느님 나라”와 “로마제국”; ‘성령과 더러운 영’; 예수의 복음과 지배올로기의 복음=> 사도(바울 포함)들과 마가공동체=>차별화 (자의식, 정체성 확인/확립, not 엘리트의식)

A. 바다 건넌: 제자들을 보내 (자신의) 신학을 완성/경험케 함

목적지: 벳새다(이방인 지역)

결과: 게네사렛(유대인 지역)으로 돌아옴 =>제자들의 초기 이방전도 시도 실패 (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?)

-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=> 예수의 이방전도(두로, 시돈, 데가볼로, 갈릴리 호수 (동편?))
- 48 바람이 거스리므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=> 괴로이 (“torment” 5:7; 6:48); 더러운 영/신학과의 싸움
-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=> 어떻게 이해할까? [제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을 경험할 기회를 줌]
- 51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...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(요 6:21,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)=> 예수는 제자/followers 에게 강압적으로 믿게하지 않았다/못했다(1:43-45; 5:19-20; 10:52)
- **떡에 관하여**(ἐπὶ τοῖς ἄρτοις)=> (그 떡 폐시던 일을; 빵의 기적을; 빵을 먹이신 기적도?? 목적어는?)=> 마태: “기적을 깨닫다” 말이 되나? =>기적의 의미를 깨닫다; 결론. 없는 말을 넣을 것이 아니라, 없는 그대로 해석하자.

달마누다(막 8:10)=> 마 15:39 (마가단, 막달라)

- 갈릴리 서편=> 그레야, 13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(또, 바리새인의 presence)
- 22 벳새다에 이르매 (마태복음=>마가단에서 직접 가이사랴 빌립보로); 벳새다에서 소경고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온다. 그 신학적 의의는?

B. 병고침: 요약 (6:53-56)

- 보편적=>누구나/어디서나=> ”침상”(2:1-12); “옷자락을 만짐”(5:25-34);
- 갈릴리 전도의 요약과 이방인 전도의 예상(7:24-37)
- 7장에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은 이에 대한 신학적 비판

C. 신학 다시하기

1. 이론: 정결법의 신학적 조명

- 정함(purity)=>질서를 상징; 부정/오염=>무질서를 상징 (Mary Douglas, *Purity and Danger*). 누구의 눈에? [Purity <= holiness(wholeness, separation)]
- 더러운 것은 없다 (7:17-19). 예외, “더러운 영”(unclean spirits)=> 더러운 생각/신학/삶 (막 7:20-23). “마음에서 나오는 것”=> 마음은 생각의 자리 (seat of thinking, not of emotion)

	예루살렘(바리새인, 서기관) 신학	예수와 제자들 신학/복음
정결법	· 613 조항+ 울법의 울타리(<i>gezeirah, fence</i>) · 외형상의 정결--잔과 주발과 놋그릇과 심지어 침상을 씻음	· 십계명 => 2 계명 (12:29-31) · 마음/생각/신학의 정결 (cf. 더러운 영)
목적	· 부정함이 외부로부터 들어옴을 차단 · 정결함은 손, 입과 관련된 외부 행위	· 부정함 생각이 밖으로 나옴을 경계 · 정결함은 인간의 내적 마음/생각에서 비롯
경계선	· 배타주의적=>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분리 (레 19:2) => 성전 => 제사장 · 보호의 수단	· 포용주의적=>이스라엘, 이방인 모두 하느님의 나라에 동참 · 기존의 경계선은 통치/압제의 수단
신학(하기)의 출발점/목적	· 경계선을 세움으로써 신성함(holiness) 유지 (status quo, 지배체제의 입장 수호); · Holiness as separation from “unclean”	· 경계선을 타파함으로써 신성함(wholeness) 세움 (세상 뒤집어 보기/읽기) · Holiness as spreading wholeness to “unclean”—even to “unclean spirits” · (Wholeness but not w/out blemish) 막 12:33; 9:42-49

막 7:21-23

- 악한 생각(evil intentions)// 악한 것들(evil things)
 복수형:음란, 도적질, 살인, 간음, 탐욕, 악독=> 행위 (=>십계명); 구체적 행위 (cf. הַיְהוָה הַיְהוָה => the righteous acts of YHWH, 미가 6:5)
 단수형: 속임, 음탕, 흘기는 눈($\acute{\alpha}\phi\theta\alpha\lambda\mu\acute{o}\varsigma$ $\pi\omicron\nu\eta\rho\acute{o}\varsigma$), 훼방($\beta\lambda\alpha\sigma\phi\eta\mu\acute{\iota}\alpha$), 교만, **어리석음**=> 성격
- 이들 리스트는 당시 유대, 헬라 문학에 등장 (롬 1:29-31; 고전 6:9-10; 고후 12:20; 갈 5:19-21; 골 3:5, 8; 딤후 1:9-10; 딤후 3:2-5; 딤후 3:3; 뱀전 4:3)
- 음란과 어리석음은 구약에서 하느님을 배반/대적하는 상징적 표현(호세아, 지혜문서)
- 안에서/마음으로부터=> 신학/가치관을 의미
 -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[선포] 하셨느니라($\kappa\alpha\theta\alpha\rho\acute{\iota}\zeta\omicron\nu\varsigma$)=> 1:40-42 (물론, 저자의 생각/신학)=> ①기록, ②사건/경험, ③의도/가치의 관계를 기억하라.
 - 보다 근원적 질문. 형식상의 정결법(수동적, 배타적)=>윤리적 (십계명)=> 신학적 (거룩한 영 vs. 더러운 영); 6:1-5 이 지엽적인 배척이라면,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지배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.
 - 예수의 행적: 문둥병(1:40-45), 안식일을 범함(1:29-31; 2:23-28; 3:1-6), 죽은 자에 손대기, 더러운 영(1:21-28; 5:1-20), 이방인, 죄인을 용서(2:1-12); 죄인과 세리와 어울림, 부정함 음식... => 안식일의 주인, 모든 식물을 정하다 선포=> 정결법을 지키기 보다 그 법/경계선을 타파=>결말은 자명 (<=3:6; =>15:15 사태)
 - 예수의 세례: 거룩한 영의 세례=> 세례가 초기 기독교의 자의식과 더불어—살아남기 위해—남과의 구별을 의미했다면(고전 5:3-5; 마 18:15-18), 마가복음이 그리는/지향하는 예수의 세례는 그런 구별조차 타파.

2. 실례

- 7:24 예수께서 일어나사($\acute{\alpha}\nu\alpha\sigma\tau\acute{\alpha}\varsigma$)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=> 삼일 후에 살아나다(8:31, 9:31; 10:34=> 안식후 첫날);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(9:9-10); 마 15:21 “예수께서 거기를 떠나”
- 예수의 이방전도가 공생애 동안 일어났는가 혹은 사후의 일인가? 제자들(마가 공동체)의 관심사인가?=> 마가공동체의 일상사였다면, 신학 다시하기의 표본

- 25 이에 **더러운 영**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=> Here it comes again! (=> 혈우병 여인)
- “자녀의 떡,” “떡던 부스러기”=> 6:31-44 (오병이어)
- 29 이 말을 하였으니(διὰ τούτων τὸν λόγον)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=> **이 말씀을 인하여**(4:17)/위하여 (말씀/생각/신학 (24 번) => 다르게 표현되었어도, 그 신학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효과적
- ①because of (무리를 인하여, 무리 때문에); ②for the sake of 위하여(2:27)=> 마 15:28 (네 ‘믿음’이 크도다): 마태복음에서는 ‘믿음’이 문제=> 마가복음에서는 ‘깨달음’이 초점
- 마 10:5-6; 15:24 (이방인 x 사마리아 x=>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)
- 무엇이 어린 딸을 고쳤는가? 예수는 명령도(1:25; 2:11; 3:5; 5:8) 손을 대거나 (1:31, 41; 5:41) 병자가 만지지도(5:27) 않았다. 병자는 없었고 처방(여기서는 여인의 말, **이 말씀[신학, 복음]을 인하여**)만 있다=> 이런 신학 (7 장); 제자들은 설명을 필요로 함(7:17-18)
-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(6:52; 8:17, 21), 이 이방여인은 예수의 말씀/신학을 자기 것으로 만듦.

D. 사천명을 먹이다

-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? “[떡]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”(6:38); “일곱 개”(8:5)
- 떡 일곱개와 작은 생선 **몇** 마리=>일곱 광주리(σπυρίς)=>보통 쓰이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(κόφινος)보다 크다.
- 오병이어 사건과 마찬가지로, 예수의 경계선 허물기는 마지막에는 성대한(? 충분한/남은 음식) 잔치로 마감

Reflections:

- 1) 내게 있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은?
- 2) “경계선 없애기”와 관련이 있나? 이를 극복하는 길은?